

종합·해설

민주, 원내-장외 '투 트랙' 투쟁 펼친다

예산심의 참여하되 불법사찰 국조 대국민 서명 손학규·박지원 강경과 설득... 국회 부분 정상화

검찰의 청목회 수사 확대와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22일 오후부터 부분 정상화됐다.

예산심의의 거부해 온 민주당이 4시간 여의 의원총회 끝에 '예산심의 참여'와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투 트랙' 투쟁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별 예산심의에 참여하되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대(對) 국민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예산심의의 참여의 최대 명분을 '4대강 예산 삭감의 필요성'으로 꼽으며 "이는 국회 정상화가 아닌

라 원내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또 장외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이날 오후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4시간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29일까지 진행될 이 농성에서 손 대표는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 같은 전술에 대해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수호 대장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이춘석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여당과의 대화 속에서 희망의 싹을 찾으려던 노력을 접고 손학규 대표는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투 트랙' 전환을 주장하는 손학규 대표와 박

지원 원내대표에 맞서 '예산심의 참여 불가'론을 펴는 정동영·정세균·전정배·박주선 최고위원 등 강경파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아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원내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낮에는 국회에 있고, 밤에는 서울광장에 있겠다'는 의미의 '주국야서'를 내세우며 투쟁의 중심에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의원들을 설득, 병행 투쟁 방침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과정에서는 예산심사 일정에 대한 전면적인 보이콧보다 원내에서 계속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싸워서 하나라도 쟁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원내투쟁파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특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은 의사전행방안을 통해 불법사찰문제 및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을 항의하고 규탄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상관하지 않고 정책질을 벌였다.

예산국회의 험난한 앞날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회 안에서 민간 불법사찰과 대포폰에 대한 국정조사를 끝까지 관철하고, 4대강 사업,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UAE(아랍에미리트) 파병 등을 저지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이 예산심사에 참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 간 마찰과 충돌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제외한 법안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상임위별로 예산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예산심사를 탄력적으로 하겠다. 명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전북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여하는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22일 광주시의회에서 창립회의를 갖고 발족했다. 왼쪽부터 유창희 전북도의회 부의장·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이은방 광주시의회 부의장·정현애 광주시의회 부의장.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무안공항 대화 통해 상생해야”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 발족

광주와 전남, 전북 광역의회 의장단이 최근 각 광역단체별로 참여하게 대립하거나 갈등을 빚는 사업에 대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지역발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호남권 광역단체 의장단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갈등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 향후 지역간 갈등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의회가 참여하는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현안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고 상호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

해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절예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협의의 조정해 시·도민의 이익이 되는 상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상호협력과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해 호남권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참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공항·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과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두 광역단체가 공항문제로 참여한 갈등의 골이 깊어 가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한 공항을 무조건 폐쇄할 수

없는 만큼 광주와 전남 지역민의 합의와 두 광역단체장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두 공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은 사업 중복 등으로 갈등 요소가 불거지고 있는 전남도의 J프로젝트와 전북도의 새만금 개발 계획에 대해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광주와 전남, 전북이 경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집중현상에서 벗어나 소외되고 개발에 밀리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세 광역단체 간 중복된 사업은 서로 양보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9개월만에 다시 거리 나선 손학규

대포폰 국조 관철 불법 서울광장서 천막 농성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2일 '장의 투쟁 카드'를 선택했다. 지난 18일 '대포폰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시작한 100시간 시한부 농성이 이날 마무리됐지만 국조 관철이 불발되자 2단계로 장외 투쟁을 선언하며 다시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에 따라 손 대표는 '4대강 사업 지지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오는 29일까지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촛불을 들고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통합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파동 와중에서 장외투쟁을 진두지휘한 지 2년5개월여만에 다시 거리로 나선 셈이다.

이러한 결단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직접 맞서는 강한 야당 투사의

면모를 통해 대선택 항쟁을 극복, 야권의 구심점을 강화하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손 대표는 이번 농성을 '민주주의 수호 대장정'으로 명명했다.

여권이 '국조 불가'로 맞서는 상황에서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대선 주자로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원내외 병행투쟁 선언을 통해 야당이 예산심사를 발목 잡는다는 비난을 피해간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싸움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이자 철저한 저항으로, 물러설 문제가 아니다"며 "제 자신을 희생해 밖에서 싸우라니 국회에서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달라"

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대표로서 100시간 농성을 '빈 손'으로 마무리한 상태라 서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은 상황이다. 또한, 대포폰과 예산문제 분리 대응 방침을 놓고 한때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리더십에 다소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원내외 병행 투쟁에 대한 당내 동력이 충분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택으로 손 대표는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서의 최종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관측이다. 장외투쟁이라는 초강수에도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장외 카드는 손 대표로서 최후의 수단"이라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동모금회 인적 쇄신”

李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독점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의 성금 유용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며 "철저한 인적쇄신이 단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영근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그동안 관행적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성금 배분권을 남용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실태를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기부와 나눔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식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서울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의 소상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5일 열리는 G20 합동보고대회의 준비 사항을 보고받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들도록 해야 한다"면서 "G20 종합보고서를 잘 준비해 후대에 노하우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

親李-親朴 갈등 다시 수면위로

지명직 최고 윤진식 거론 서병수 최고 강력 반발

한동안 잠잠해 있던 친이(이명박)계와 친박(박근혜)계 간 한나라당 내부 갈등이 오랜 기간 공식 상태였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놓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명직 최고위원직 두 자리 가운데 한자리에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윤진식(총복 총주) 의원을 앉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자 친박계 서병수 터 객관적인 평가를 들도록 해야 한다"면서 "G20 종합보고서를 잘 준비해 후대에 노하우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

으로 충청권은 친박(인사)을 약속했고, 추천해 달라고 말해 강창희, 김학원 전 의원과 이완구 전 총남지사를 추천했다"며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당대회 이후 4개월이 지나 윤 의원을 임명하겠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결정한다면 안 대표가 전대에서 말한 화합과 소통의 정치 약속을 공개한 것"이라며 "친박 측 인사 3명은 왜 안 되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윤 의원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청와대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와대 지시에 거스리 노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고 요구한 뒤 회의장을 나가려 했다.

이에 안 대표가 "상정도 안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반문했지만 서 최고위원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을 때까지 담무를 거부한다"며 퇴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안을 이날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친박계의 이경현 의원은 이에 대해 "전당대회 직후 안 대표가 약속했던 문제"라며 "너무나 당연한 문제에 대해 자주 일관성을 잃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주류인 친이계가 호남 최고위원으로 김대식 전 민주당 사무차장을 인선하려 했으나 정두언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충청권에 윤 의원을, 호남쪽에 친박계 인사를 배치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땀땀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m

A C E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야맹증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어게·목결림, 수직지림·수족냉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